



KC뉴스레터
QR코드를 찍어주세요



KC Newsletter vol.28



Networks

[KC코트렐] 제38회 창립 기념일 행사



[KC APC Division] 2011 APC Workshop



[KC코트렐] 신입사원교육



[KC코트렐] ·인천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명진 보육원 3KW 태양광 설치 및 봉사활동

[안성유리] 2011 하반기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 개발 사업" 선정



Economic Trend

12월 달러/원, 1,070원 ~ 1,195원, 엔/원,
1,410~1,568원 유로/원 1,446~1,587원



[원자재시장]



KC Edition 1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 96' 지금, 우리는



KC Edition 2

[Noltec] Minnesota 경관



KC Edition 3

[38주년 창립기념식 수상자 소감]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코트렐] 제38회 창립 기념일 행사

KC코트렐의 창립 38 주년(11월 27일)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25일 KC코트렐 본사에서 “제 38회 KC코트렐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사외이사님인 김효근 교수의 “행복기업, 행복사원” 강좌 그리고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 임직원의 만찬으로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표창장 수상자는 장기근속자 30명, 우수사원 7명이 수상되었으며 간단한 다과로 제 38회 창립기념일을 전 직원이 축하하며 함께하였습니다.

KC그린홀딩스 지원팀 하혜진 사원(hyejin@kcgreenholdings.com)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APC Division] 2011 APC Workshop

KC APC Division 임원 Workshop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KC그린홀딩스와 KC코트렐을 비롯한, 영국, 미국,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해외 법인장 등 2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KC코트렐 본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1) 새로운 고객, 시장확보
- 2) 네트워크간 협력 증진
- 3) 인재와 기술 함양 및 2012년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와 해외신규수주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하여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7일 첫날에는 각 사업부 및 법인별의 2011년의 실적과 2012년의 목표 및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18일인 둘째 날에는 첫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의 수주금액 4,000억 원, 매출액 4,400억 원, 영업이익 200억을 이루는 작전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리스크관리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해외법인장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KC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가능성들을 토론하였습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코트렐] 신입사원 교육

2011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KC코트렐 11년도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총 36시간의 신입사원연수를 통해 회사전반의 사업흐름과 경영이념 그리고 비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안성공장탐방을 끝으로 신입교육을 마친 정호중씨의 소견 및 신입교육현장사진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내 교육을 통해 우리 회사가 거쳐 온 도전의 역사를 알고, 현재 우리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집진기와 탈황 및 탈질 설비의 기초이론을 통해 부서 배치 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안성 KCMS를 방문하여 KCMS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Test Tower를 볼 수 있었고, NWL의 생산 공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접한 안성유리에서는 재활용 유리병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회사뿐 아니라 모든 관계사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일 간의 교육을 통해 함께 입사한 분들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교육을 위해 시간 내어주신 덕분에 회사생활에 대한 더욱 강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회사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코트렐] 인천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지난 11월 23일 한국남부발전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공사인 KC코트렐(KC솔라에너지) 이태영 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수산정수사업소(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소재)에서 1MW급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남부발전은 인천시민의 ‘맑은 물 공급기지’인 수산정수사업소의 물 생산시설인 여과지 지붕과 정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연간 127만kWh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인천시내 350여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800t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린 소나무 28만8000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하며, 원유를 연간 2000배럴 덜 수입하는 효과와도 같습니다.

송기인 남부발전 기후변화대책팀장은 “유휴공간이었던 건물 지붕과 시설물 상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산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를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준공은 종합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도시로 도약하려는 인천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설치 항공사진



◀ 감사패

▼ 준공 기념 식수

KC솔라에너지 태양광사업팀 박경선 사원
(kyungsun@kc-cottrell.com)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코트렐] 명진 보육원 3KW 태양광 설치 및 봉사활동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명진 보육원 (성암복지재단) 에서
지난 11월 11일 봉사활동을 겸한 3kW 태양광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해당설비(약 1000만원 상당)는 한국남부발전, KC코트렐 (KC솔라에너지), 현대중공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보육원에 무상으로 기증하였으며, 전력상계거래를 통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만큼 전력요금이 차감되어 보육원의 전기 요금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KC솔라에너지의 강태일상무와 임태훈 선임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행사의 자리를 빛냈습니다.



▲ 명진 보육원 봉사활동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안성유리] “2011년 하반기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 개발 사업” 선정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는 2011년 하반기 정부시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고효율, 친환경 제조공정 구축을 위해 에너지 자원의 절감과 온실가스·폐기물의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환경 규제 및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고하고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기술개발지원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 과제명 :

: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cold top all electric furnace 개발

♠ 기술개발 내용 :

- : 기존 유리용해로는 화석연료 B-C Oil 또는 LNG를 연소시켜 상부에서 원료를 용융시키는 방법이나 기술개발 전기로는 용해로 유리 물 내에 직접 통전시킨 전기열을 활용하여 유리 원료를 직접 용융시킴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대기로 배출되는 열 손실이 없어 정부시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 에너지 효율 70%이상 달성 -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대기로 방출되는 열 손실이 없어 열효율이 향상됨
 - 저탄소 친환경 공정의 전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물질 절감
 - 온실가스 감축 : 4,960 tCO₂

♠ 기술개발 기간 : 2011. 11.1~2012. 10.31 (1년)



[안성유리] 국제품질규격 및 환경경영 ISO 9001, 14001 갱신심사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 하에 혁신적인 품질경영을 추진해 온 안성유리는 지난 2008년 11월 국제적 공인인 ISO 9001, 14001 인증을 받았습다.

ISO 경영시스템의 인증은 국제기준 (ISO 17021)에 의거 인증유효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 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연장심사를 실시하나, 당사는 금년 3연차로 갱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갱신심사는 경영자의 품질방침에 대한 의지와 향후 제품 인증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장에서의 3정 5S와 모든 직원들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충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안성유리는 국제표준규격인 ISO 9001, 14001를 통하여 환경 및 품질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환율시장]

12월 달러/원, 1,070원 ~ 1,195원, 엔/원, 1,410~1,568원 유로/원 1,446~1,587원



<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6개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정점을 지나는 듯 했던 유로존의 부채위기는 국채시장 불안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유로존의 부채위기 극복과 관련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FSF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보증비용을 차지하는 프랑스(20.1%)가 AAA 등급을 잃을 경우 구제기금 조달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이미 7% 전후를 위협하며 구제금융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기존 구제금융 집행조차 불확실해질 경우, 위기가 유로존내 경제규모 3위와 4위 국가로 확산되어도 이를 구제할 여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는 그간 소극적인 독일의 입장선호로 이어져 유로본드의 도입과 ECB의 역할 확대에 반대여사를 철회를 표명할 수 있고, 이는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8일 ECB 정례회의와 9일 EU정상회담을 전후로 독일의 입장 선회 여부와 환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외채 구조의 장기화, 단기외채 규모 축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 축소 등과 한중일 통화스왑 등 대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경로 확대 등으로 외채건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제고되어 타통화 대비 비교적 낮은 절하율을 보였다. 이 같은 여건은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 한해 동안에도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점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을 상정할 때 여타 통화화 비해 약재를 덜 반영했다는 것은 향후 추가 약세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위기 확산 시 자금이탈로 이어지며 환율의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1100원대 후반에서는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 10월 수입 물가 상승률은 16%에 달했는데,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글로벌 경기 하강위험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통제할 여력 또한 좁은 까닭에, 당국은 선제적으로 환율 상승을 제한해 추가 물가 상승압력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 부채위기 완화 시 달러/원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권 하에서 벗어나 11월의 반등을 되돌리는 가운데 하향안정화가 예상된다.

<여기서 잠깐!!>

11월 달러/원 환율은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번복과 MF글로벌 파산, 이탈리아 국채금리 상승세로 11월 초 2거래일 동안 11.80원의 급등세로 출발했으나, 그리스 국민투표 철회 소식으로 11월 4일 하루에만 19.20원 급락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 장세로 시작했다. 이후 박스권 장세를 보였으나, 유럽 최대 채권중개업체가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증거금을 인상하자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를 상회했고, 부채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익스포저가 큰 프랑스의 신용위험이 동반 상승하며, 이후 프랑스와 벨기에의 CDS 프리미엄이 유로존 창설 이래 최고치로 오르는데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독일의 국채금리 역시 입찰 미달 사태에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채위기가 PIIGS 뿐만 아니라 핵심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협의 및 중국의 지준율인하, KOSPI 지수의 상승 등의 호재로 11월 말 및 12월 초에 USD는 큰 폭 하락하며 1120원대에 진입하였다.

출처: 삼성선물 11월 금리환율 전망 2011.10.31

KC 그린홀딩스 재경팀 이강호 (kangho@kc-cottrell.com)

[환율전망]**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매달 환율게시판에 올리는 연간 환율전망을 뉴스레터 추가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현재부터 앞으로의 환율예측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Nomura Bank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USB,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rclays 등 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기초로 당사가 수주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P.O발급시점) 적용할 환율이며, KC그린홀딩스 재경팀에서 선물환(HEDGE) 계약 시 참고하는 환율입니다.

통화구분	예측기간	TTS(수입시 - 구매)	TTB(수출시 - 영업)
USD	2012.1분기	1151.83 /달러	1129.83 /달러
	2012.2분기	1124.50 /달러	1102.50 /달러
	2012.3분기	1095.89 /달러	1073.89 /달러
	2012.4분기	1078.93 /달러	1056.93 /달러
EUR	2012.1분기	1514.11 /유로	1482.11 /유로
	2012.2분기	1486.31 /유로	1454.31 /유로
	2012.3분기	1467.72 /유로	1435.72 /유로
	2012.4분기	1454.87 /유로	1422.87 /유로
JPY	2012.1분기	1531.12 /100엔	1509.12 /100엔
	2012.2분기	1489.14 /100엔	1467.14 /100엔
	2012.3분기	1438.53 /100엔	1416.53 /100엔
	2012.4분기	1417.02 /100엔	1395.02 /100엔

추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재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12.07 최초 매매기준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USD 1,131.20/달러

EUR 1,516.54/유로

JPY 1,455.11/100엔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원자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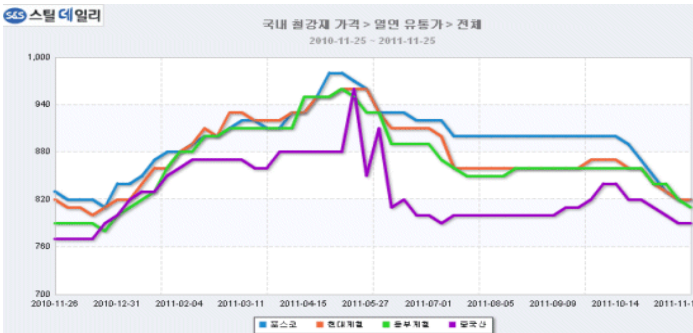
[열연] 열연동향 - 적자 누적 허덕·하락압력 견뎌
- 시중 수요 부진에 하락압력 여전...적자 누적으로 인하 기피

[스틸데일리 11월26일]

- 시중 유통가격 : SSC, 하락 압력에 가격 저항 커

열연 시중 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됐다. 호가는 국내산이 83~85만원, 중국산은 82만원 안팎이다. 실 거래가격은 국산이 82만원~83만원, 중국산은 78~80만원 수준이다. 중국산의 경우 소폭 하락했으며, 국산은 횡보세. 거래량 위축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여전하지만 적자 출하에 따른 부담이 가격 하락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회전이 급한 업체들의 경우 현금 거래를 조건을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78만원 전후 출하되는 열연코일은 현금 비중이 높거나 대량 물량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79~8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SSC의 열연코일 구매가격은 8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매 원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국산 열연이 출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에 대한 할인 요구가 여전히 거세다.

스틸 데일리



최근 열연 유통시장의 또 다른 이슈는 부실 문제다.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작은 규모의 부도사태가 들리고 있다. 업체들이 부실채권을 숨기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부실 채권 발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 우려 및 경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매에 대한 부담도 더 가중되고 있다.

[냉연] 냉연동향 - 적자 속출, 혹독한 겨울

[스틸데일리 12월03일]

-판매 및 가격동향

실적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3분기 적자를 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강판을 취급하는 현대하이스코, 동국산업 등만이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불안하거나 적자로 돌아섰다. 유니온스틸은 3분기 1.6%의 영업이익률을 내며 간당간당히 흑자를 유지했고, 동부제철과 포스코강판은 각각 -715억 원, -1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이 -6.7%, -4.8%로 뚝 떨어졌다. 내수부진과 수출적자, 환차손 등 각종 악재들이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12월이 도래한 현재 상황도 3분기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 4분기는 더욱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 업계의 예상이다. 냉연업계로서는 춥디 추운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의 고탄 냉연진출 소식에 관련 업계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11월 5주 냉연도금재 유통가격

단위: Kg/원, 도착도 기준

품목	규격	냉연3사			
		포스코제철		냉연3사	
		공장도	판매점	공장도	판매점
CR	1.2mm	1180	1080~1120	1180	1030~1100
PO	4.5mm	1110	950~1050	1110	950~1000
GI	1.2mm	1280	1150~1170	1280	1050~1150
EGI	1.0mm	1290	1150~1170	1290	1050~1150
HGI	2.3mm	1230	1050~1100	1230	1020~1050

-유통가격 동향

냉연유통시장은 차강판 연계물량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반 유통에서 거래물량은 계속 침체상태이다. 시중 유통가격은 시중에 툭 튀어나오는 초저가 물량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산 정품들이 초저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산 PO가 Kg당 900~950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냉연유통업체들은 올해 장사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고 소진에 역점을 두면서 무리하지 않는 판매로 부도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유통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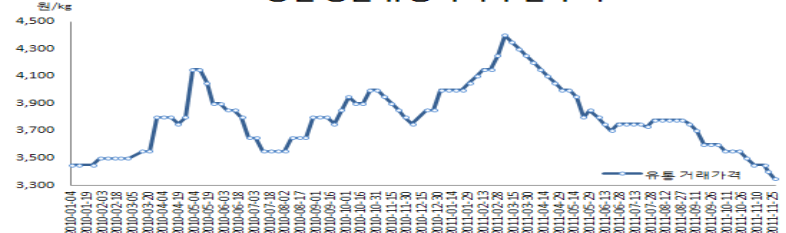
시중 거래가 뜸하면서 유통재고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냉연유통업체들의 재고는 큰 대형코일센터일수록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는게 현 시국이다.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시중에 초저가 물량 등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STS] STS동향 - 월말 앞두고 '후두둑'

[스틸데일리 12월03일]

11월 마지막 주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은 월말판매 등의 여파로 한차례 가격이 흔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요가 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물량을 들고 업체들과의 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마지막 주 304 스테인리스 열연과 냉연의 시중판매가격은 시트기준으로는 kg당 3,350~3,400원대 수준이며, 일정 정도의 양이 될 경우에는 kg당 3,250~3,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니켈가격이 1만 6~7천 달러 대 사이를 오가며 제품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요인이 퍼지고 있는데다가 월말과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업체들 간의 재고소진을 위한 판매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최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관해 메이커들도 유통업체도 거의 한계원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준에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4 냉연 평균 유통가격 주간 추이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그 때 그 시절 사보연재-마지막]
'96' 지금, 우리는

세계는 겉표전으로 몸살을 앓고, 국내에서는 97년 IMF
외환위기의 문 앞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하던 시절....
정치계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대통령 후보들이 득세하며
민주화 과정의 종착역에 들어서며, 한국 최초의 소형 실험위
성인 '우리별1호'가 발사됐고, 김거리에 신승훈, 김건모
등 발라드 황제들, 노사연의 '만남', 김수희의 '애
모', 김정수의 '당신' 등 국민가요들이 흘러나오고, 극
장가엔 '장군의 아들, 쉬리'가 흥행을 하고 있던
1990년대!

KC코트렐에서도 사보제작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지금부터
4회에 걸쳐 “그 때 그 시절, KC코트렐 사보”를 연재하
여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 1996년 발간된 인쇄물 형식의
KC코트렐 사보 겉표지

'96
지금 우리는

(당진 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조감도)

한 국 코 트 렐 (주)

치 사

親愛하는 社員여러분께

多事多難하였던 1996년의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머지않아 1997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今年은 우리나라의 經濟가 例年에 비하여 全般적으로 不振하여 여러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高費用低能率이 우리 經濟를 沈滯에 빠뜨린 根源이며 이 늪에서의 脫出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衆論입니다.

政府나 여러 企業들이 費用 10% 줄이기 運動을 展開하면서 人員減縮과 組織改編등을 단행하여 改善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高費用低能率로 表言되는 오늘의 이 現象은 지난 여러 해동안 年 10% 이상의 人件費上昇이 持續되어온 反面에 生産性向上이 이를 뒤따르지 못한 結果가 長期向으로 累積되어 招來된 것으로 景氣變動週期的 下向局面에서 나타나는 一過性現象이 아니라는 데 매우 深刻한 우려를 內在하고 있습니다.

우리 會社의 금년도 經營은 例年에 비하여 多少 低調하기는 하나 그래도 正常的인 實績을 올릴 수 있었음은 社員여러분의 努力의 結果로 얻어진 것으로 참으로 마음 든든하며 전 社員에게 眞心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高費用低能率을 克服하는 길은 費用의 減少와 能率提高에 있다 하겠으며 이 두가지를 同時에 成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最善의 길일 것입니다.

費用의 主項目인 人件費는 國民生活의 質과 密接하게 連繫되어 있으며 一段 上昇된 이 마당에 다시 減縮하기는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므로 費用節減은 會社 經營全般에 걸친 制度改善과 節約増進을 通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低能率의 提高는 하기에 따라서는 比較的 容易하게 큰 成果를 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每事의 能率은 社員여러분의 마음가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積極으로 參與하고 奉仕한다는 精神은 바로 能率의 基本입니다.

그리고 自己가 잘 모르는 部分의 技術에 대한 探究에 集中的으로 精進하여 技術力을 培養한다면 그것은 바로 自己開發이자 發展이며 低能率에서 脫皮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더 一層의 奮發을 期待하겠습니다.

親愛하는 社員여러분!

1997년의 새해가 여러분에게 希望에 찬 한해가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랍니다.

社員 서로가 同志愛와 友愛로 和善한 가운데 自己가 會社의 主人이라는 強力한 責任意識으로 하나가 되어 韓國 Cottrell을 世界 第一의 會社로 發展시키는 데 힘찬 前進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家庭의 平和와 幸運을 祈願합니다.

1996년을 보내며

會 長 李 達 雨

스케치

'95 乙亥年

☞ 공채 6기 입사

청운의 꿈을 안고 위풍당당하게 입사한 공채 6기 24명. 최선을 다해가는 그들이 모습속에서 코트렐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 동교동 사옥 준공



지난 95년 3월 22일 동교동 골목을 가득 메우며 이사를 끝내고, 4월 15일 각계 각층에서 축하하러 와 주신贵宾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준공기념식 행사를 치루었다.

☞ 안성공장 기공식

관계사인 소강산업(주)와 (주)천연의 안성공장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안성지역의 경제발전과 신규사업에 대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금 우리는

☞ 안성공장
기공식 모습☞ 창립 기념
단합 대회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라는 현수막을 걸고 모인 우리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스케치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상장회사가 되지 처음으로 일반주주들을 모시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주주를 모신 가운데 사장님의 사회로 성황리에 진행된 주총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96 丙子年

공채 7기 & 8기 입사

‘복덩어리’로 불리며 의기양양하게 입사한 공채 7기 19명과 다채
다능한 공채 8기 14명을 맞이하여 Man Power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2000년대 K/C의 주역으로 성장할 큰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
는 바이다.

☞ 사업본부제로 전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탄력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기술과 영업을 하나의 본부제로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협동과 단결로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겠다. 화이팅!!!

 한국전력 당진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 수주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모든 직원의 일심단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를 당할 자 그 누가 있으리...

지금 우리는

연희동 빌딩 신축기공

구 연구소 부지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신축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공식이 있었다.(97년 9월 완공예정)

ISO 인증수여식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영국 BVQI로부터 전기집진기·복합식집진기·배연가스처리장치등에 대해 ISO 9001인증을 받았다.

창립기념 등반대회 - 관악산

오랫만에 전 사우들이 모여 등반에 참석하였다. 자연과 더불어 서로간에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

마음의 여백

♪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

- ♪ 자녀 친구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 주세요.
친구에게 인기가 많은 아버지가 아이들의 캐피터든요.
- ♪ 자녀의 키랄 몸무게를 표시해 두세요.
아빠 사랑을 느끼며 어서 크고 싶어 더 잘 먹게 됩니다.
- ♪ 운전할 때 목적은 굵목.
집에서와 같이 많은 아버지의 연행을 아이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 ♪ 바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마음있는 곳에 시간있는 법.
아이의 운동회날에는 휴가를 내면 어떨까요.
활짝 웃는 아이 얼굴을 위해 상사의 쫓그런 얼굴쯤은 잊어버리세요.
- ♪ 시간을 지켜 온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십시오.
아빠 없는 식탁에 익숙해진 자녀는 아빠 존재에 무관심해집니다.
- ♪ 집에서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하는 아버지는 가정의 활력소. 아이들도 따라하게 되죠.
- ♪ 자녀 이혼을 짓게 된 동기라 뜻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이가 자기 존재에 대해 긍지를 갖게 돼요.
- ♪ 할머니께 전화를 자주 경도속 시키세요.
- ♪ 천고가 되려고 가르치지 말고 천선을 다하려고 가르치세요.
- ♪ 자녀 성적보다 특기에 관심을.
- ♪ 공부하러는 막에 앞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는

- ♪ 공부 잘하는 것을 물질로 보상하지 마세요.
- ♪ 부모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 ♪ 기초나 천머를 강요하지 마세요.
- ♪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길었던 만큼 싸우는 모습은 곧 상처로 남습니다.
- ♪ 온계는 짧게
- ♪ 방상머리에서 아담치지 마세요.
- ♪ 체벌은 천선의 선택이 아닌 천후의 선택.
체벌의 정도와 방법은 아이 스스로 정하게 하세요.
- ♪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구요?
시골에 가서 마당에 멍석깔고 병보기, 씨름하기, 편지쓰기,
음악하기, 어인이만한 같이 보기, 생일날 카드 보내고 아이방에
풍선달아주기, 크리스마스트리 장식하기, 훗볼켜놓고 얘기하기,
직장에 데리고 가기, 함께 음식만들기, 같은 생짜과 모양의 풋입기,
유러병에 고무마 치우기, 너무 많다고요? 몇가지만 하셔도 돼요.



가족마당 I

탈황설비 입찰을 준비하며

FGD사업본부 이 태 준

도박과 운동경기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 반전에 반전이 거듭된다는 점. 포카판에서 플러쉬를 누르고 플러쉬가 판을 쓰는 순간 “잠깐, 여기 포카드, 미안하게 됐습니다!”라는 반전이 있었다. 국민학교 시절 투박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 중계되던 봉황기 교묘야구대회에서 군산 상고는 역전의 명수였다. 9회말 2아웃 2 스트라이크. 볼 하나를 남겨놓고 해설자도 대세가 이미 기운 것을 아는 듯 승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멘트를 하고 군산 상고를 응원하던 열성 팬들도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앗, 잘 맞았습니다. 우웬썩 뺏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마느냐. 좌익수 헛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아, 넘어갔습니다. 홈런! 호웬런! 투런 홈런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올 때 판중의 함성소리는 놀이만 갔고 다시 뒤집어진 승부 앞에 모두들 역전의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반전의 반전을 가슴 조이며 즐겼다. 마치 포카판에 모인 낱들처럼 — 처음에 주어진 패는 생각보다 좋았어. 죽을 패라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음 판을 노렸겠지만 이걸 그제 아니야. 최소한 아무 내지는 플러쉬를 바랄 수 있는 패였어.

거기다 한두 판을 돌리고 나니 몇명은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이 방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수들이네. 어디 상대편 패를 읽어볼까, 저쪽은 액면이 상으로 보기는 어렵겠고, 또 저쪽은 패는 별로인 것 같은데 재력이 상당한 놈이라 무작정 배팅 하면 내가 배겨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맞은편에 있는 너석은 트릭의 명수라는 소문이 있으니 눈여겨봐야지.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너석이 골치야. 패를 손에 쥔 때도 배팅할 때도 아무런 표정이 없으니 어디 패를 읽을 수가 있어. 그러나 더 겁나는 놈은 그 옆에 있는 놈이야. 입가에 띄우는 야릇한 미소는 “포카 아니면 일찍 다이하는 게 좋을 걸”하는 기분 나쁜 암시를 주는 듯한 모습이거든. 분명 저 너석이 쓸어갈 것 같단 말야. 들어오기 전에 저 너석과 미리 거래를 해놔야 하는 건데, 둘이 손만 잡을 수 있다면 최소한 절반은 따 놓은 당상인데 말이야. 아깝지만 차는 이미 떠나갔고 다음 패에서 승부수를 노릴 수밖에. 아, 드디어 찬스가 왔어. 내 패는 액면 상으로는 플러쉬로 읽혔겠지만 속패는 사실 아무였는데 드디어 집이 지어졌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암 그렁구말구. 그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지금 우리는

꾼들에게 있어서도 이 정도 판은 평생 몇 번 있을까말까하는 기회인데 나 같은 애송이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요. 마지막 히든을 남겨놓고 생각도 정리할 겸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한대 피어 물었어. 근데 그 야릇한 미소를 짓던 사내가 내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 “형세, 이번에 형씨가 죽어 준다면 내 절반은 때 주리요. 판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형씨외에는 내사 다 누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내가 저 너석을 두려워한 것처럼 저 너석도 나를 두려워한 모양이군. 기분은 좋아. 저런 고수가 나 같은 신참에게 흥정을 해온다는 사실이. 나도 이번 판만 쟁기고 나면 저런 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저 너석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위험부담을 줄이고 실리를 챙길 수는 있었지만 난 언제까지나 햇병아리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미안 하외다.” 마지막 카드는 내겐 별 의미가 없었지. 포카가 그리 쉽게 뜨는 건 아닐 테니. 예상대로 포카는 물 건너가고 집으로 승부를 띄울 수밖에 없게 되었어. 일단 내가 선이니 “체크”로 시작하자. 조 밑살스런 너석만 아니었더라도 판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네 말이야. 예상대로 다들 크게 배팅하지는 못하고 있군. “쿤”, “쿼터”, “나도 받고”. 어, 근대 “다블”을 치는 너석이 나오게 아니겠어. 예상과는 달리 그 “다블”의 주인공은 야릇한 미소를 짓던 너석도, 속임수 고수도 아니었어. 재력이 좋다는 다소 우직해 보이는 그 놈이었지. 하늘이 노래지는군.

그 너석은 아닌데, 아닌데..... 결국 우직해 보이는 그 친구가 판돈을 몽땅 쓸어가고 말았지. 분명 그는 탁판에 잡는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최후의 승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 자, 이제 깨끗이 일어나자.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밖에. 맛있는 한판이었다.

한여름 지하실에서 입찰작업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가 혼숙하며(??? 무던히 애를 썼다. 마치 컵을 넣기 위해 산고에 몸부림치는 산모처럼(더 야하네???)) 그래서 컵에게 더 정이 간다는 말이 있나보다. 개인적으로도 회사로서도 처음 해 본 일이라 남다른 열정이 있었음이라.

보령, 태안, 하동 입찰을 준비하던 시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 잠이 부족해 졸린 눈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사우의 모습, 밤샘하고 나서 화장이 들떠있는 여사우의 얼굴을 바라보면 웨이리 예치롭고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남자 사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에 몇날 몇일을 들어가지 못하니 같이입을 옷이 없어 난감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 차장님의 경우는 사모님께서 손수 숙우와 셔츠, 양말 등을 가져다 주셨고(물론 부식도 조달해 주셨다) 신 대리와 전 사우는 아예 침낭, 숙우, 면도기, 수건 등을 가져다 놓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가족마당 I

나는 타고난 천성이 게으른 편이어서 그냥 몸으로 때웠는데, 3일은 조금 힘들어도 그냥 버티기, 또 3일은 노랜티로 가뿐하게 지내기, 그 다음에는 근처 가게에서 내의 사 입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입찰서를 내는 당일까지도 일이 끝나지 않아 한 쪽에서는 제본하랴 또한 쪽에서는 타이프 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결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하는 게임이었기에 그 게임의 법칙은 지켜져야 했다. 이렇게 어렵게 제출한 입찰서를 나중에 다시 보면 웬 오발자가 그리도 많은지, 보령 입찰서에 "태안"이라는 글자는 왜그리 선명하게 눈에 띄던지...

이번 일을 위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하나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믿는다. 실패한 자만이 터득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었고 성공이라는 열매가 막대한 환상이 아닌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실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당진 project를 수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한 제도약의 의지와 협동으로 코트렐의 2000년대를 밝혀가는 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따뜻함을 먹고 사는 사람들

FGD 사업본부 홍 정 희

처음 일일호프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소담회 (한국 코트렐 여직원들의 모임)을 이루고 있는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서였다. 여기 동료들 사무실로 이사는 이래 각 층마다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어 자주 얼굴도 못 보면서 마음조차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뭔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벌여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일 호프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불우 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일일호프는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부천 해림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여야겠다. 소재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0여명의 정신 지체부자유자를 수용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무료로 자원 봉사를 하시고 소수의 분들은 최저의 임금을 받으며 직업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비용은 정부보조금과 각 단체의 후원금을 이용하여 꾸려 나가고 있는데 해림원은 다른 영세 보육원이나 고아원보다는 경제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내가 제작년에 가 보았을 때도 그런 사정이 눈에 보였다. 좁은 방에 십여명씩 모여 앉아 놀고 있었고 식사도 그리 풍족하지는 않은 듯이 보였다.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런 복지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는 절대 개발 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림원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일일 호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다.

일일 호프의 준비는 9월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일일 호프 장소를 물색하여 정하고, Ticket design을 공모하였다. 수많은(?)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결과 엄 은경 사주의 작품이 당선되었다. (사실은 지원자는 단 한 명이었다. 흑흑흑...) 이로써 티켓이 제작되었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일일 호프 당일 11시부터 준비를 하여 손님 맛을 준비를 하였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 걱정을 하는 중에 우리의 첫번째 손님이 드디어 문을 들어섰다. 그 주인공은 아무형 주임과 그의 동반자였다.

가족마당 I

그것을 시작으로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우리들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본사 직원들은 물론 소장, 산언, 인천식구들, 그리고 삼환기업분들까지 모두 오셔서 격려하여 주셨다. 모든 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소담회가 불우 이웃들을 한나기에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에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의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코트렐의 사우분들은 이웃의 불행한 처지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한국 코트렐 사우분들이 우리 소담회를 아직 믿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감과 함께 효뚝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환자(?)에도 없는 마당(?) 노릇을 하루 종일 하다보니, 어느새 끝낼 시간이 되어 뒷정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도저히 몸이 너무 피곤하여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이때 해성감이 나타나 도와 준 세 명의 천사가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입선수 파장, 손준기 대리님 이상민 대리였다. 이 지면을 빌어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원래 시작할 때는 같이 하여도 뒷정리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것이 人之常情인데, 끝까지 도와주시는 세 분은 진정 천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치른 일일 호프는 이익금도 적절히 남기고 큰 탈없이 치렀으니, 잘 치른 것이 되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은 한번 한 것조차도 의미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의 일일 호프의 주된 목적인 해립원을 방문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는 것이다. 끝까지 잘 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같이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서없이 이어진 글을 마친다.

맺어기

1996년 12월 7일 우리는 조출하게 해립원을 방문하였다. 그 때 인상 깊었던 점을 몇 글자 더 적어보고자 한다.

해립원에 모여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무연고자라고 몇몇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 대부분의 무연고인 정신박약아들은 부모에게 버려진 것이라 한다. 간혹, 연고 조사를 하여 그 부모를 찾는다 하여도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그런데 해립원에서 교육하시는 선생님의 이 말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회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박약아를 버려야 교육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나, 조금 후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뜻은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정신박약아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해립원 같은 보육 시설에 있으면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정신박약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0:1이라는 경쟁율을 뚫고 들어와야 하고 그것도 12살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정신박약아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버려서 사회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신박약아지만 가정에 있는 것과 사회보호시설에 있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자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 더 손쉽고 정확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나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내가 사는 주변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다시한번 사회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지금 곳곳에서는 파소비,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이웃의 이런 실정이 한, 두 사람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 한국 코트렐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여태까지 이런 사회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한 것은 아니나, 한 번 가 본 것이 나의 단일한 정신 상태를 깨어나게 해 준 것 같다. 이 이외에도 나는 많은 부분을 느꼈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 한국 코트렐 사람들도 내가 느낀 것을 함께 느꼈으면 해서 몇 자 적어 보았다. 나의 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Zoom

품질보증팀 이종영

우리의 생활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일중에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그리고 학교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미래가 걱정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고쳐 나갈 때 조금씩이라도 고쳐지게 될 것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예술이라고 한다. 공장의 큰 굴뚝에서 나가는 검은 연기도 예술로 보고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할 일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 것도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다. 외국의길에는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질서를 깨는 일이 생기면 즉각 나타나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곤 한다. 우리나라의경찰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이 아니고 벌금을 매기기 위하여 도로에 출비하게 서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나...

우리 회사에는 사진 동아리 모임인 줌(Zoom)이라는 신출내기 모임이 있다.

사진 동아리는 한국코트렐, 소강, 산면에 재직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

이 모임의 장점이라면 여행도 즐기면서 자신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장점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진기를 못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이 보편화되어 있는 자동 카메라로 찍을 줄은 알지만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서 멋진 사진을 찍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궁금증을 풀려 하 한다면 사진 동아리 모임인 Zoom에 오시면 사진기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안정되게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손에 의한 불려 현상

최근의 카메라는 가볍고 콤팩트하여 완전 자동으로 전자화되어, 셔터를 누르는 조작만으로 일단 깨끗한 사진이 촬영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카메라 취급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다루는 버릇이 생기게 된다.

사진 실패의 원인은 손떨림(카메라 흔들림), 초점흐림, 노출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AE (Auto Exposure)와나 AF (Auto Focus)와 덕분에 초점이 안 맞거나 노출 부족이 줄게되어, 가장 많은 실수는 손떨림이다. 이 손떨림은 카메라 잡기와 셔터 버튼의 조작을 바르게 하지 않은 잘못이다.

둘째, 셔터를 안정되게 누르는 방법

카메라를 흔들리게 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려면, 카메라 잡기와 셔터 누르기를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

① 카메라의 셔터는 가볍게 눌러 셔터를 쏘는 것이 좋다.

② 팔꿈치를 빌리지 말고 카메라를 똑바로 잡아야 하며,

③ 조용히 숨을 잠깐 멈춘 뒤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최소로 하여 셔터 버튼을 살짝 누른다.



④ 무릎을 약간 벌려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

셋째, 셔터를 1,2 단으로 나누어 누르는 방법

1,2단으로 나누어 누르는 먼저 셔터 버튼을 반쯤 살짝 누름으로서 파인더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여유와 셔터의 타이밍을 기다릴 시간을 만드는 등의 이점이 있다.

상기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丙泊費淵茨耕이란 말도 있듯이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이 더욱 더 소중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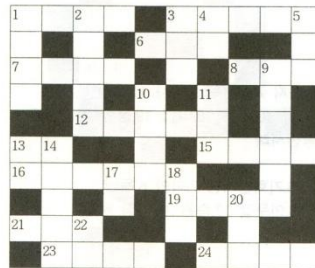
사우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맺을까 합니다.

마음의 여백

▷ WORD POWER GAME ◁

→ ACROSS(가로)

1. He is a _____ runner.
[그는 빨리 달린다.]
3. 결혼하다 (반) single
6. _____ with the head, woman with the heart.
[남자는 머리, 여자는 마음] (속담)
7. The flag of Canada has a red _____.
[캐나다 국기에는 빨간 잎이 하나 있다.]
8. 뚱뚱한 (= thick) (반) thin
12. 수평(선), 수준, 평평한, 동등한
13. _____, how interesting!
[아아, 참 재미있구나!]
15. ~를 인도하다, (길 따위가) 통하다,
과거형은 led
16. in the _____ [미래에는]
19. You _____ to take a rest.
[너는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21. Thanks a _____. [매우 고맙습니다.]
23. 길 (= street), 수단(= means)
24. _____ is the smallest thing in the world.
[원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 Down (세로)

1. The zoo was _____ of people.
[그 동물원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2. _____ we go out now?
[우리 지금 밖에 나갈까?]
3. ~해도 좋다, ~일지도 모른다(조동사)
4. half _____ hour [30분]
5. 이미(= already), 아직도(= still)
9. I'm _____ of a mouse.
[나는 쥐가 무섭다.]
10. 이제까지, 언제나, 늘(= always)
11. _____ of us like you.
[우리 모두는 너를 좋아한다.]
13. London is the capital _____ England.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14. 익살, 유머
17. Get _____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18. 끝 (반) beginning, 끝나다
20. What do you _____ for lunch?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니?]
22. It's ten _____ nine.
[9시 10분 전이다.]

□ 해답은 64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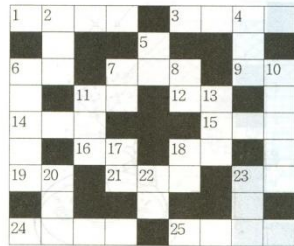
♣ 가로 1.천고마비 3.사사오입 6.가지 7.피천득 9.약사 11.백안
12.남인 14.만보계 15.뚜꺼비 16.수습 18.억겁 19.성인 21.관문장
23.조교 24.일석이조 25.당선사례

♣ 세로 2.고선지 4.오두막 5.자천 6.기화만사상 7.피안 8.독남
10.사이비종교 11.벽계수 13.인두검 17.슬관 18.억장
20.인조석 22.운무 23.조계사

마음의 여백

➔ 가로열쇠

1. 하늘은 높고 말이 살핀다는 계절을 이름
3. 4.4는 4로, 6은 5로 계산하는 반올림
6. OO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7. 주옥 같은 에세이를 쓴 원로 수필가
9. 천막 판자등으로 임시로 지은 집. 피난민 OO
11. 눈동자가 파란 눈. OO의 스님
12. 조선시대 사색당파의 하나 복인
14. 만보의 걸음을 재는 기기
15. OOO 파리 잡아채듯(아무 것이나 닥치는대로 받아먹는 모양)
16. 학업 실무 등을 배워 익힘. OO기자
18. 무한히 긴 시간. OO의 세월
19. 석가모니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등은 4대 OO
21. 삼국지에 나오는 촉한 무장 관우의 별칭
23.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
24.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25. 당선자가 선거인에게 감사의 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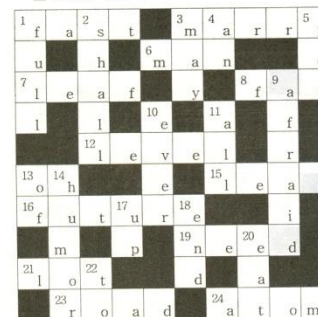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 세로열쇠

2.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개척한 고구려 출신 장수
4. 사람이 겨우 거처할 정도의 작은 집
5. 자기를 스스로 천거함. 모수OO
6.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7.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도달. OO의 세계
8. 아들을 낳거나 얻음 특녀
10. 길으로는 그럴 듯하나 속으론 완전히 다르거나 가짜인 종교
11. 청산리 OOO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요즘 소주이름으로도 인기
13. 사람의 형사이나 탈. OOO을 쓰다
17. 버릇. 나쁜 OO은 하루 빨리 고쳐야
18. 가슴, 복장의 속어. OO이 무너지다
20. 인공적으로 보석처럼 만든 것 자연석, 천연석
22. 구름과 안개. OO에 싸인 지리산 영봉
23. 서울 도심에 있는 한국 불교 최대종파인 조계종 본사


▶ 해답은 62쪽에




❶ 회 사 연 력 ❶

- 1973. 11 한국코트렐공업(주) 설립
- 1979. 4 미국 Research Cottrell사와 기술제휴
- 1979. 9 인천공장 준공
- 1990. 7 대만전력공사 Talin & Hsinta 화력발전소
전기집진기공사수주
- 1990. 11 한국코트렐(주)로 상호변경
- 1990. 11 대만지사 설립
- 1991. 9 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 연구수행
(한국형 산업용 전기집진기 개발)
- 1992. 2 대만전력공사 Talin & Hsinta 화력발전소
집진기 공사완료
- 1992. 6 대만전력공사 Shen-Ao 화력발전소 집진기
공사수주
- 1992. 8 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 1992. 10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 1993. 6 제1회 환경대상(환경과학기술부문)수상-환경처 &
조선일보 공동제정
- 1994. 11 주식상장
- 1995. 2 필리핀지사 설립
- 1995. 3 사옥이전
- 1996. 3 한국전력 당진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 수주

❶ 한 국 코 트 렐 (주) ❶


 깨끗한 환경, 깨끗한 생활 -
한국코트렐 (주)



보이는 물

라쿠스 정수기

“Clean Air”


....That's what we have been doing !!!



하늘은 파랗게, 강산은 푸르게...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들—
한국코트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산업용 집진설비 만들기
외길 21년,
아름다운 금수강산, 푸른 하늘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말뭉쳐 온 한국코트렐은 93년 제 1회 환경대상 환경과학
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기술신진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집진설비의 국산화와 고품질화를 통해 지난 92년
1억불 수출고를 달성하기도 한 한국코트렐—
앞으로도 첨단 환경과학기술연마와 연구개발에 더욱
전력하여 자구환경보존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코트렐 (주)**

그때의 KC 코트렐..

지난 세월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다시 힘차게 살아봅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며

KC 그때 그시절

THE END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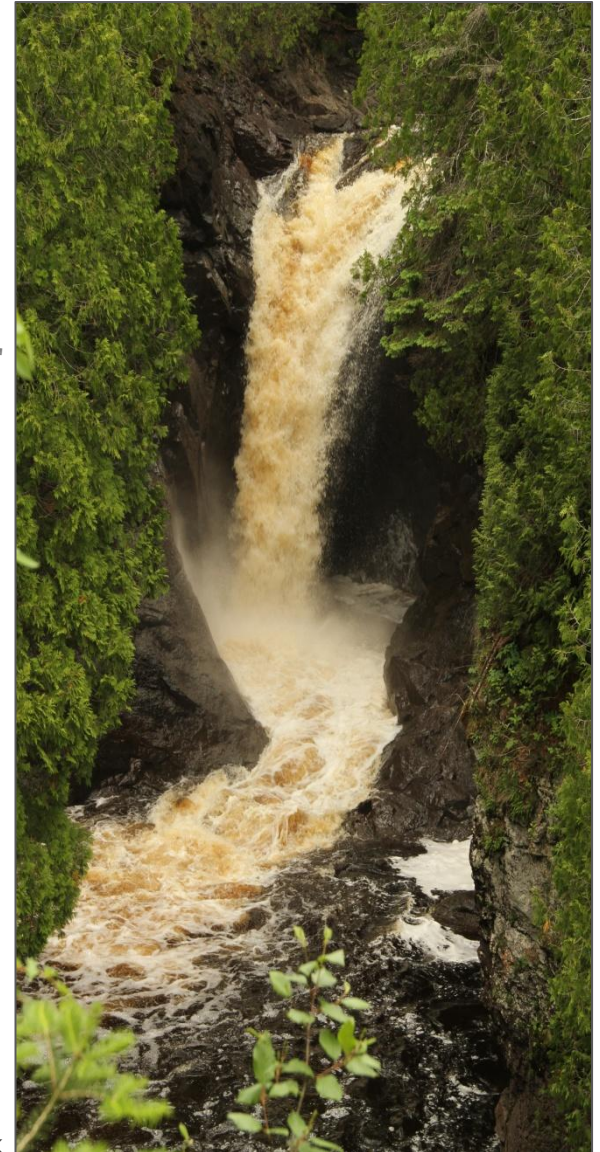
기획특집 3

[Nol-tec System] – Minnesota 경관

Hello, I am Lynn Joachim, the Administrative and Accounting Manager for Nol-Tec Systems, Inc. located in the U.S. in the State of Minnesota. Nol-Tec has been a member of the KC Green Holdings Group for the past year, and I have been a member of Nol-Tec for sixteen years. Since one of my hobbies is photography, I was asked to contribute some of my photographs to the KC Green Holdings newsletter.

The majority of my photos are nature images taken in my home state of Minnesota. Minnesota is known as the “Land of 10,000 Lakes” so there are plenty of scenic areas to inspire a photo. A region of the state that I enjoy for its picturesque beauty is the “North Shore” area along Lake Superior, which is one of the five Great Lakes that borders the US and Canada. In addition to the Great Lake, there are waterfalls, rugged rock formations, rivers, forest roads, and wildlife such as moose, wolves, deer, bear, and eagles. Minnesota has many State Parks to preserve the natural setting and provide hiking trails and campgrounds. It is a 4-hour drive to reach this area from where I work and live.

Cascade River State Park



[Nol-tec System] – Minnesota 경관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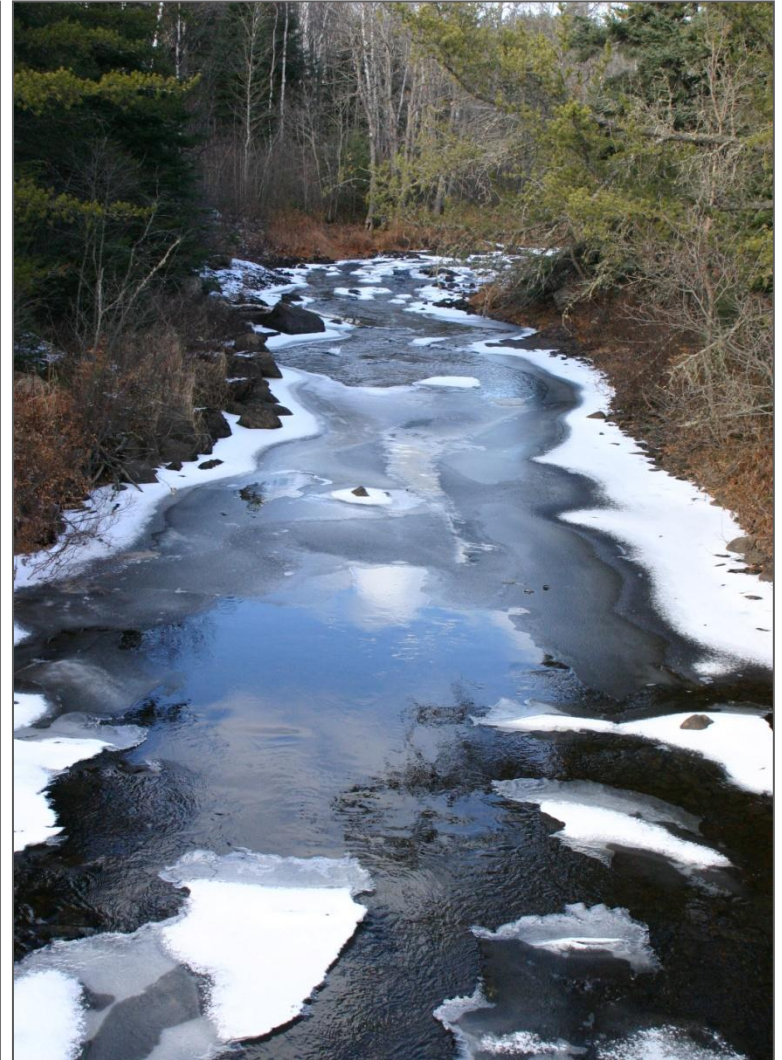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Tettegouche State Park



Boundary Waters Canoe Area Wilderness –
Temperance River Park

[Nol-tec System] – Minnesota 경관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Eagle in Lutsen, Minnesota



Lake Superior – Frozen shore

Another region I enjoy photographing is right where I live, in the St. Croix River Valley area of Minnesota. The landscape includes lakes, farm land and the gorges of the St. Croix River. This river runs between Minnesota and Wisconsin and flows into the Mississippi River, the largest waterway in North America.

An aspect I love about photography is capturing a single moment in time. The landscape continually changes with the weather and lighting so no two photos are the same.

[Nol-tec System] – Minnesota 경관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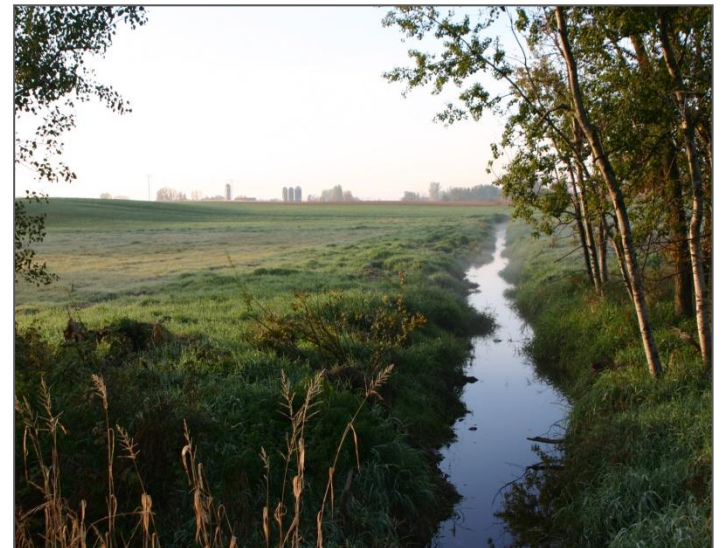
Coyote in Scandia, Minnesota



Gammelgarden Museum in Scandia, Minnesota



Marine on the St. Croix, Minnesota



Farmland in Chisago, Minnesota

[Nol-tec System] – Minnesota 경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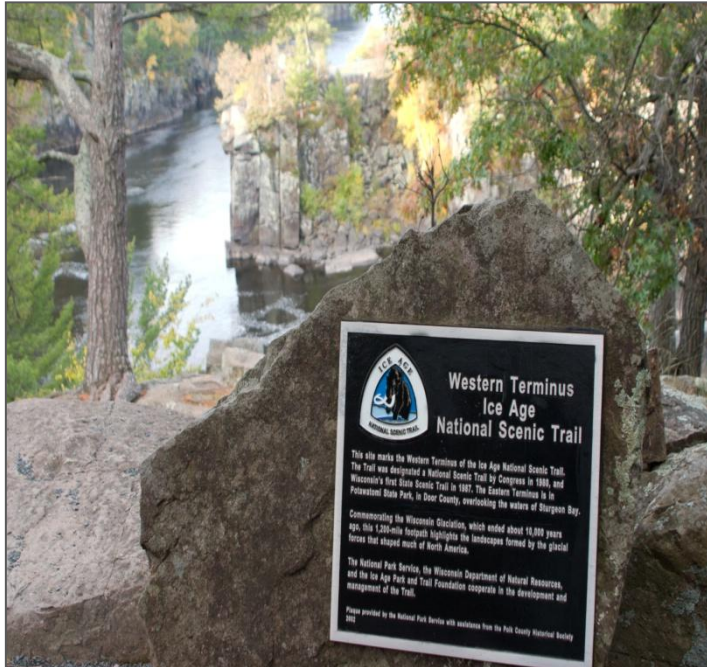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St. Croix River - Interstate Park, Wisconsin



St. Croix River – Interstate Park, Wisconsin

I have posted a short slideshow of Minnesota Images on You Tube to supplement this article.

<http://youtu.be/COldl8BEtbM>

If you are interested in seeing more images of Minnesota and other locations I' ve traveled to in the United States, I invite you to view my photo site on the internet at:

<http://www.flickr.com/photos/minnesotalynn/>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2011년 입사한지 25년...

1986년 입사시 큰딸이 1살 이었는데 그 녀석이 울해 시집을 갔으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동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 회사 출근하려면 시청전철역에서 내려 덕수궁 돌담길을 쳐다볼 여력도 없이 매일 아침 뛰다시피 출근하였던 기억이 생생 합니다.

요즘은 E-mail/핸드폰으로 수시로 현장의 상황을 보고 하지만 그때는 출근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현장에 전화하고 지시 하느라 오전이 훌쩍 넘어버리고 정신 차릴 때쯤이면 점심시간..

뒷골목 아주머니의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

그 시절은 왜 그렇게도 출장이 많았는지 1년 동안 출장 일이 250일 넘어 사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만큼 집에는 소홀히 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생각....

포항에 3일만 출장 갔다 오면 된다는 상사의 말에 별 준비 없이 갔는데 3개월이 넘도록 집에 가지 못하여 집사람이 1살짜리 딸아이를 입고 포항에 탄생립(?)을 차렸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위낙 밤, 낮으로 일만 하는 것을 보고 하루 만에 되돌아 갔던 기억...

밤샘 작업을 하느라 지쳐서 순간적인 실수로 열연공장의 Roller를 정지시켜 비상상황을 만들었을 때의 아찔함, 그 때의 기억으로는 우리의 집진기는 2억 정도인데 만약 철판이 생산되는 시간에 Roller를 정지 시켰다면 수리비용이 10억 원을 넘을 것이란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대가로 포항제철 1년 출임정지라는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던 기억...

여수화력의 전기집진기 공사 시 Program을 잘못 삽입하여 여름 성수기 전력사용 Peak때 발전소 전체를 Trip시켜 비상상황을 만들은 주범이었던 나 또다시 전과 기록이 추가될 뻔 하였지만, 그 당시 유정근사장님이 한전의 대 선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한전발전처장이 코트렐 사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사고수습을 하라는 지시에 여수에 내려가셨는데 발전처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까마득한 후배인 발전처장이 유정근 사장님을 극진히 대접하여 사고 수습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전과기록을 추가하지 않았던 기억...

대만 프로젝트의 회처리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운전 중 Vacuum Pump의 고장으로 내일아침이면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Supervisor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여 말도 안 되는 시도,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각서 쓰고 Pump를 분해수리 조립하여 새벽 4시경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짜릿함...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GreenH

KC GreenH

KC GreenH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매일 집진기의 Hopper에 Ash는 쌓이고 배출은 잘 안되어 모든 직원들이 밤, 낮으로 시키면 Ash를 뒤집어 써서 이빨만 하얗게 되어 어느 나라 종족인지 모를 정도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이면 그 뜨거운 땀벌에서 족구를 할 때 대만사람들이 우리보고 모두 정신병자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를 일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노는 것 이상으로 즐기는 것으로 인정했을 때의 기억...

외국 프로젝트의 경험이 없다 보니 사양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말도 안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아 승인도서를 제출하면 15분 이상이나 회짜를 맞았을 때는 내가 다니는 대만 쪽으로 향하여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러웠던 생각...

당진 탈황설비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하는 프로젝트라 독일의 Supervisor가 왔는데 실력을 보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하여도 된다는 라감하고도 당돌하게, 3개월 일정으로 짐 싸 들고 온 녀석을 1주일 만에 되 돌려보내고 고생하였지만 우리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던 기억..

석회석 저장탱크의 Agitator가 고장나서 항전 물레 밤새 정상화 하겠다고(?) 백기를 부려 두명이사 밤새도록 슬러리를 퍼다가 항전의 공터에 파고 묻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보아도 그곳에는 아직도 풀이 나지 않는 것을 항전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밤샘 작업을 하였는데도 10%도 슬러리를 치우지 못하여 다음날 동이 틀때쯤 포기하고 인부 20여명을 동원하여 1주일 작업하였으므로 무모하리 만큼 어리석고(?) 그저 자신감만 충만하였던 시기..

광양 1~4소결 청정설비의 CO축배가 또 한번 나의 인내를 시험하였던 때, 4개월여 동안 공사는 중지 되었고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회사 존, 폐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으로 전 직원이 협심하여 최고의 프로젝트로 마무리 하였던 기억...

일일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소주한잔 하면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술 안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생스럽고, 자신감 탕배, 도전, 극복 이런 것들이 모여 소중한 경험을 만들었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 하였다면 그것으로 내가 한일이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K/C코트렐의 모든 직원들의 경험이 밑 바탕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 할 것이고, 1조원의 매출 달성 그날에 다시 한번 옛일을 회상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7일 임창호

기술연구소 임창호 상무
- 2011년, 25주년 근속상 수상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KC GreenHoldings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GreenHoldings

TALK

경비에게 항수육을 사주며
야근했던 남의 집살이(정동빌딩)
시절부터, 대만PJT, 거래소 상장과 사옥 입주,
당진항항설비 수주로부터 시작된
연이은 Consortium PJT들,
IMF, 2006년의 금강상Tour, 창립CC20,
그리고 지금 창립38주년...

개인적으로는 입사 후 결혼도 하고,
이제는 어느새 고2와 중3의 학부형이 되어 있으나,
앞만 보고 달려온 20년이 넘는 KC의 세월이
길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지나온 20년 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아직은 영화 18도밖에 안 되는,
덜 추운 카작에서 황철구 배상.

발전민수사업부 황철구 선임
- 2011년, 20주년 근속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장석운입니다.

표창장의 내용처럼 제가,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회사발전에 이바지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 ...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파이팅..

재경팀 장석운 선임
- 2011년, 우수사원 수상

KC GreenHo

TALK

KC GreenHoldings

TALK

KC Gr

TA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KC GreenHoldings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GreenHoldings

장기근속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면,
요즘 현실은 쑥스러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곧바로 지방파견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POSCO에 처음으로 포항소결공장 공정용 전기 집진기 납품
설치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전기 집진기의 국산화Project와 다름 없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만큼 직 군을 가리지 않고 선배님들과 밤낮
고생도 정말 많이 했지만, 결국 이루었고,
성취감에 보람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KC Model을 정착화하는데 땀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선,후배님들의 노력은 입사2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눈부신 도약을 하였습니다만,
무한경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CC20활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예전의 다양한 모험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실무를 열심히 익히고, 그 후 10년은 전문가가 되어
야 하고, 그 후는 개인과 회사가 요구하는 리더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 “자기계발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
시던 말씀도 후배님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근무기간, 초심으로 돌아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CC20 구호, (변하지 않네자! 50! 29! 화이팅!)
처럼, Fighting하시길 바랍니다.

제철사업부 오봉수 PM
- 2011년, 25주년 근속상 수상

"초심을 잃지 말라..."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항상 처음을 기억하고
처음보다 나아지려고
노력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사업부 이정미 사원
- 2011년, 우수사원 수상

KC GreenHoldings

KC GreenHoldings

KC GreenHoldings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KC GreenHoldings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GreenHoldings

TALK

오직 앞만 보고 바삐 달려온 시간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발전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IMF와 최근의 경제 위기에도 굳건한 발전을 거듭
했던 KC 코트렐.

앞으로의 긴 여정에 조그만 한 기여를 하며 좋은 동료들과 보
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최근이긴 하지만 하지 않음
엔 최근에 가까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며, KC코트렐이 진정으로 최고 중의 최
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노력하며 다가오는 우리들의 성
공적인 미래를 희망적으로 꿈 꾸어 봅니다.

저의 20주년에 대한 여러분의 격려와 많은 축하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임원 박기서 전무
- 2011년, 20주년 근속상 수상

KC GreenHoldings

TALK

KC GreenHoldings

TALK

KC GreenHoldings

TALK

변화와 창조를 리더하여

38살 젊은 KC가 환갑을 넘어

100년을 넘어 가는 장수회사가 되었으면 합
니다

~짜요~

해외사업부 최희규 선임
- 2011년, 20주년 근속상 수상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KC GreenHoldings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KC GreenHoldings

TALK

안녕하십니까? 기장 민태환 입니다

KC 창사 38주년을 맞으면서 누구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2011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사와 함께 65.7%에 동반자 본이은 또 다른 하나 정년에 명찰을 달았기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한 해 인 것만은 분명하질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뒤도 돌아 볼 줄 아는 여유도 있는 듯 하구여

다시금 둘러보니 생소했던 당어 IMF 도 생각이 납니다....

죄책감에 갈망했던 후배들에 미안감도 생각이 나고

하지만.....

IMF를 맞으면서 성장에 디딤돌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지난날들
돌아보니 고마운 여러 경영에 고참님이 어른 됩니다

한 뼉 한 뼉 바느질하듯 생산하던 D.E 생산도

C.E를 출가 시키려면 타고 갈 가마가 적어서 고민을 함께 했던 지난 시절에 동료들..

모두가 함께한 우리의 모습, 다시금 떠오릅니다

요소 요소에 숨겨진 우리 모습이 무언에 힘이 되고

함께 가는 미래에 동반자,

모두가 라이링 입니다!!!!!!!

품질관리팀 민태환 기장

- 2011년, 25주년 근속상 수상

" 우선 상을 받으신 모든 분께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니 실망 안 했으면
좋겠네요.

바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든 분이 건강

하시고,

곧 다가올 2012년 용띠 해에는 모든 분의 희

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해외사업부 정택인 선임

- 2011년, 우수사원 수상

Holdings

KC GreenHoldings

TALK

KC Gr

TA

[KC코트렐] - 창립기념일 수상자 소감

KC GreenHoldings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경제 동향

기획특집 1

기획특집 2

기획특집 3

20년 세월이 참 빠르네요
아이들 크는 것만 알았지 내 자신은 세월 가
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무얼 했는지...그리 충실했던 것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오랜 시간인데 별로 이룬 게 없어 아쉬움이
더합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지요!
수많은 P/J 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배웠으며, 재미도 있었네요^^
이제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며 쌓아온 경험들
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습득하게 하여, 좀더
건전하고 젊어질 수 있는 코트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철사업부 채봉석 선임
- 2011년, 20주년 근속상 수상

사랑하는 KC와 함께한 지난 20년이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난 20년을 교훈 삼아 다가올 20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욱더 가슴을 크게 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봄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쇠는 달구어야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KC역시 많은 역경과 고난에 길을 헤쳐 나왔기에 오늘이 있는 듯 합니다.

거기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의 작은 역할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자
큰 영광으로 생각 되며,
새로운 KC에 도약과 변화 그리고 즐기찬 발전에
저 역시 부족 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연시 맞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원 김화수 상무
- 2011년, 20주년 근속상 수상